

한발짝 다가온 ‘로봇 연극’ 시대

글 | 김요셉_ 대덕넷기자 joesmy@hellodd.com

예술 문화계에도 첨단과학 로봇들이 침투한다. 사람 대신 무대 위에 로봇이 올라서게 된다. 더 이상 로봇 기술만을 보고 감탄하는 시대가 아닌, 로봇 기술을 통해 진한 감동을 얻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로봇연극은 예술과 첨단 과학의 진정한 결합

내년 중순이면 200여 명이 모인 로봇전용극장 관객들 앞에서 첨단로봇이 연기를 펼치게 된다. 로봇에 예술의 혼을 불어 넣어줄 ‘로봇연극’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로봇연극이 최초로 선보일 시기는 내년 8월경으로 대한로봇축구협회(회장 김종환 KAIST 교수) 주관으로 ‘2007 세계경주문화엑스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로봇연극은 기존의 연주나 춤을 추는 등 단편적인 로봇의 기술 성능을 보여주는 이벤트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이다. 연극 시나리오

오에 맞춰 다수의 로봇이 출연하고 연기하는 로봇 예술의 형식은 그 동안 없었다. 일본 역시 로봇이 공을 던지고, 연주하는 등의 퍼포먼스는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로봇들이 연극하는 행사는 선보이지 못했다.

내년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 공개될 로봇연극은 로봇들이 무대 위에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배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람 대신 감성과 지능을 가진 자율 이동로봇들이 등장해 주어진 스토리에 따라 연극을 하면서 기술을 통한 감동을 선사하게 된다. 또한 음향, 조명, 특수효과 등이 어우러져 사람의 연극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무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행사 관계자들은 최첨단 로봇기술과 자유로운 예술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대 연출가, 로봇 개발자, 시나리오 작가 총집합

로봇연극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로봇축구협회는 올해 안으로 ‘로봇연극 준비위원회’를 발족,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술 문화계와 과학계 전문가들을 모두 영입할 계획이다. 무대 연출가를 비롯해 전문 시나리오 작가, 로봇 개발자, 연출가, 총감독, 로봇 디자이너 등 가능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독특한 행사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엔터테인먼트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한로봇축구협회가 뛰고 있다.

로봇연극 준비위원회가 가동됨과 동시에 대한로봇축구협회는 ‘로봇배우’를 선발할 예정



이다. 순수 연극용 로봇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물론 로봇 제작 업체들이 만든 기존 로봇들을 총망라해 오디션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차세대 예술 문화계의 ‘스타로봇’을 뽑는 것이다.

이미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로봇 자원들은 충분하다.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 드럼 치는 로봇, 대화를 주고받는 로봇, 날아다니는 로봇, 골프 치는 로봇, 각종 동물 로봇, 격투하는 로봇, 청소 로봇, 3차원 가상 로봇 등 로봇연극에 출연할 만한 로봇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다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센서 개발과 연극 시나리오에 맞는 기능 개발 등 로봇연극을 위한 통합적 기술 연출과 기획을 완성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로봇들이 연기를 제대로 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

3년 전 기획, ‘2007 세계경주문화엑스포’서 첫선



김종환 KAIST교수

사실 ‘로봇연극’이란 개념은 11년 전 ‘로봇 축구’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던 김종환 KAIST 교수가 처음으로 생각해 낸 아이디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남에게 도둑맞을까 싶어 김 교수는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지난 2002년 10월 ‘로봇극장’이라는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증을 출원, 등록했다. 이 등록증에는 로봇극장 운영 등 앞으로 로봇연극을 통해 파급될

수 있는 각종 비즈니스 내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수년간 김 교수가 묵혀둔 이 아이디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뜬구름 단계에서 실현단계로 행보를 급선회하게 됐다. 로봇연극을 본격 대중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올해초 경북도 공무원들이 2007년 세계문화엑스포에 첨단 과학을 접목하기 위해 김 교수의 명성을 듣고 KAIST로 찾아왔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결국 김 교수는 “로봇연극을 세계 최초로 펼치자”라는 제안을 했고, 경주 엑스포 추진위원단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대한로봇축구협회는 200석 규모의 극장 등 로봇연극 실현을 위한 사전 답사를 마쳤으며, 현재 경북도와 협의과정을 거쳐 본격 행사를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협회측은 이번 로봇연극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구상하고 있다. 무대 리모델링을 비롯해 로봇 개발비, 홍보비 등 투자해야 할 곳이 적지 않다.



소형 휴머노이드 한사람(HSR) 로봇 연극 출연

역대 출연료 받는 스타로봇 출현 기대

김 교수는 로봇연극의 파급효과를 그리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 엔터테인먼트 로봇시장이 유기적으로 호흡하면 로봇연극 비즈니스는 아주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내년도 처음으로 벌어질 로봇연극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경우, 우리 나라는 로봇연극 중주국으로서 위상을 떨침과 함께 새로운 로봇극단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로봇전용극장이 생겨나고, 다양한 연극 시나리오에 맞춘 로봇연극 개발과 함께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 스타 연예로봇을 탄생시킬 수 있다. 로봇의 캐릭터 산업으로 변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해외진출 비즈니스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조만간 스타로봇이 출연료를 받는 시대, 로봇 예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우리는 로봇축구와 로봇올림픽의 중주국으로, 로봇스포츠 강국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로봇예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리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예술장르인 로봇연극을 통해 ‘로봇스타’도 출현해 한류의 또 다른 주역이 될 수도 있고 전문 로봇극단도 생겨나 새로운 로봇비즈니스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봇연극은 김 교수팀과 (재)경주문화엑스포,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준비해 경주 문화엑스포 기간인 내년 8월에서 10월 석달 동안 200석 규모의 전용 극장에서 상연될 계획이다. **SD**